

편지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귀하의 선한 일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미국에 있습니다.

중간보고

저희가 받은 마지막 보고에 의하면 베다니 팜 보육원(Bethany Farm Home)의 부흥회에서 총 93명의 어린이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퍼레이션 롱 언더웨어(OPERATION LONG UNDERWEAR)

많은 후원자와 친구들의 관대한 마음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71개의 모든 보육원에서 후원어린이와 미결연 어린이 모두를 위한 옷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곳에는 추가 자금을 더 보냈습니다. 모든 보육원의 원장님들이 편지를 통해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들 모두가 대구에서 만나 기금 사용 방법과 기부자들의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에 탄 보육원 재건

이번 호 <컴패션>에서는 이에 대해 완전한 보고를 할 수 없으며, 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사진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좋은 새 건물이 12월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행히도 한쪽 끝에 있는 세 개의 방은 불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들과 원장님의 집, 그리고 급하게 세운 임시 거처 덕분에 어린이들은 불편하긴 해도 녹녹하지 않은 곳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크고 작은 선물이 매일 들어오고 있어, 우리는 모든 가구를 갖춘 보육원을 완전히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사무소의 전 직원은 매일 우편 배달원이 많은 “화재 보육원 복구 기금(Burned Orphanage Fund)” 봉투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반응은 실제로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후원자들이 지니고 있는 긍휼한 마음(Compassion)을 보여줍니다.

중고 의류, 장난감 등의 많은 소포도 보내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미 도움을 주셨고 앞으로도 도움을 주실 모든 분들께 "마음 다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보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한국에는 그런 보

험이 없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시 소방서로부터 소화기를 여러 대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불이 났을 때 보육원에는 여성 직원들만 있었고, 그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낮은 연령대의 어린이들(동일 연령대의 대부분 어린이처럼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어린이들)이었고, 그들 중 한 명이라도 화상을 입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합니다. 매년 수백 개의 미국 교회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진)

6,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위해 구입하거나 직접 만든 일반적인 두꺼운 방한복 옷입니다. 모든 기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공홀의 보육원

304명에 이르는 베다니 보육원(Bethany Home)의 높은 인구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60명의 소년을 분리하여 양육할 완전히 새로운 보육원이 완공되었습니다. 위 사진은 거의 완공된 모습입니다. 아래 사진은 새로 완공된 대구의 앤젤스 보육원(Angels Orphanage) 본관입니다. 새로운 식당과 예배당 및 주방이 들어설 건물의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미군에서 물질과 재정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보육원 합창단의 1RCA LP 레코드

12곡이 수록된 훌륭한 앨범 <한국 고아들의 목소리(The Voices of Korean Orphans)>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건이 넘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저희는 합창단 사진과 함께 레코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을 소개하고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모든 그룹에 컬러 슬라이드를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후원자님이 이 어린이들의 노래를 즐겁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61년을 맞아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든 요청하시는 분께는 기꺼이 저희의 레코드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다만 포장 및 우편 비용으로 최소 1달러를 편하신 시간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¹RCA (RCA Records): 1901년 '빅터 토키 머신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음반사로, 현재는 소니(SONY) 뮤직 산하의 미국 음반사임(https://ko.wikipedia.org/wiki/RCA_%EB%A0%88%EC%BD%94%EB%93%9C).

특별 후원자 응답

지난 호 <컴패션>에서 말씀드렸던, 사역을 준비하고자 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몇몇 분들이 연락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정기 후원자 중 몇 분이 매월 후원금을 15달러로 늘리고, 그들의 고아 청년을 신학교에 보낼 것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아래 사진은 기독교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고, 곧 신학교에 들어갈 홀리 램프 보육원(Holy Lamp Orphanage)의 두 젊은이입니다. 이 유망한 헌신적인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투자를 하셨습니까! 이들은 기독교 보육원의 열매입니다!

저희는 곧 저희가 지원하는 개척 전도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외국인 선교사"를 원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 발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 급구

빠르게 성장하는 업무로 인해 매일 우편물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원자는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는 진실한 소망을 가진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며, 타이핑 기술이 필요합니다. 좋은 급여와 시카고의 다른 기독교 단체에 필적하는 사회보장제도,²블루 크로스(Blue Cross) 및 휴가를 보장합니다. 자세한 경력과 경험 및 간증을 작성하여 보내 주십시오.

연간 재무 및 감사 보고서

1960년 재정 보고서는 <컴패션> 3-4월호와 함께 발송되며, 저희 우편물 수신자 명단에 있는 모든 분들께 보내 드립니다. 우편물 수신자 명단에 대한 정기 검토가 곧 완료될 것이며,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비기부자의 이름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공지 사항

크리스마스, 생일 또는 다른 어떤 때에라도 고아를 위한 특별한 선물 용도로 저희에게 돈을 보내거나, 고아를 위한 물건 구매 목적으로 보육원에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경우 물건을 사서 고아에게 직접 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아를 위한 소포나 편지를 시카고 사무실로 **보내지 마십시오**. 한국으로 직접 보내시기 바랍니다.

²블루 크로스(Blue Cross): 미국의 건강보험 회사(https://en.wikipedia.org/wiki/Blue_Cross)

저희는 특별 학생 범주(대학, 성경 연구소, 신학교 또는 간호사 교육)에 속하는 모든 전도사와 청년들에게 특별 선물금을 전달할 것입니다.

한국으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보내지 마시고(보내시면 반환됩니다.) 저희 시카고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기 및 특별 기금은 한 달에 1회, 한 번에 송금됩니다. 우편 발송, 한화로 환전, 송금까지의 소요 시간은 4~5주입니다. (예: 3월 후원금 전액은 1월 25일 한국으로 송금되어 3월 1일까지 전달됩니다.)

거의 모든 후원자가 1년 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후원을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후원자가 사진과 양육 기록 등을 당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후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희에게 통지하실 필요는 없으며, 월간 후원금을 계속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단해야 하는 경우 서류를 반환해 주셔야 새로운 후원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간증문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대학생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 CCC)로 저를 초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기 전까지 저는 제 의지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곳 대구에 있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로부터 바닷가에서 열리는 개인영성회복 컨퍼런스(Personal Revolution Conference)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크나큰 내적 행복과 기쁨을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고, 평생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거듭났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치신 대로 이 큰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 서수원(Suh Su Won)

(수원 양은 한국 사무실의 훌륭한 비서이자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번역가입니다.)

원장님의 편지

매월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보육원 관리에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체부가 미국에서 도착한 후원자들의 편지를 어린이들에게 배달하기 위해 보육원에 오면, 어린이들은 그에게 달려가 순식간에 그를 에워쌉니다. 모두 후원자의 편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한 광경은 너무나 자주 저를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후원자님의 편지와 선물을 받고 기쁨과 행복에 함성을 지르는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후원어린이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희에게 인내하기를 말씀하셨지만, 그 어린이들도 후원을 받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두루마리 그림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에서 분기마다 모든 보육원에 제공 및 발송합니다.)

- 대구, 하우스 오브 호프(House of Hope) 보육원, 최기숙 (Mrs. Choe Kee Sook) 원장

좋은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 청소년의 편지

친애하는 선생님,

동봉된 우편환은 한국 부산에 있는 칠드런즈 프로텍티브 보육원(Children's Protective Home)에 있는 한국 고아 김성기(Kim Sung Ki, 11번) 어린이를 위한 것이며, 이것으로 올해 후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후원하고 싶으며, 가능 여부는 나중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이 어린이들을 풍성하게 돌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십 대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편지

친애하는 스완슨 씨,

한국의 26번 이영숙(Lee Yung Sook) 어린이의 분기 후원금 24달러 수표를 동봉합니다.

도전적이며, 깊이 있고 영적으로 고양시킵니다.

친절한 선물에 매우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어린 고아를 후원한 이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귀하의 사역은 크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한국의 소중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귀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에 틀림없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전도회가 저희를 대신하여 하고 계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기쁨을 주었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잡지에 실린 광고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권과 사명

저희만큼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을 돕는 일에 저희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그것은 저희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교 간호사

목사님이 알려주신 한국의 정동원 보육원(Chung Dong Won Orphanage)의 43번 정진희(Jung Jin Hui) 어린이를 위하여 1년간 돌봄 비용으로 후원금 96달러 수표를 동봉합니다.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학생들은 '미래의 간호사 클럽(Future Nurses Club)'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클럽은 프로그램을 시작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그룹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미래 간호사 그룹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다른 학생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회비 외에도 소녀들은 이틀 동안 교수진 프로그램에서 요리법을 판매하고 다과를 제공하여,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기"를 위한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요청한 사랑스러운 "네 살 아기"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후원자 중 한 명

저의 어린 고아 소녀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며 축복입니다. 그녀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새롭게 맞이하는 인생의 모든 새로운 국면에 대해 들떠 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받은 모든

물건을 들고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처음 제가 고아를 후원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많은 어린이들과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신 목사님의 수고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느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섬김을 통해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자(Jung Ja Lee) 어린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저의 섬김의 폭이 넓어졌습니다.